

전 남

파프리카·무화과 농가소득 가장 높다

〈시설재배〉 〈노지재배〉

전남도농기원 조사

지난해 전남지역에서 생산된 작물 가운데 노지재배는 무화과, 시설재배는 파프리카(착색단고추)의 농가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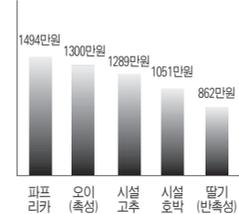
24일 전남도농업기술원 식품연구소가 2009년산 도내 주요 농산물 51개 작물·753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득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화과는 10a(300평)당 462만 7000원, 파프리카는 10a당 1494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지재배 작물은 무화과에 이어 ▲구기자 385만원 ▲참다래 377만원 ▲복숭아 280만원 ▲단감 183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시설재배 작물은 파프리카 다음으로 ▲시설오이 1300만원 ▲시설고추 1289만원 ▲시설호박 1051만원 ▲딸기(반축성) 862만원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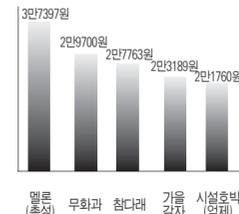
지난 2008년에 비해 10a당 소득이 증가한 작물은 파프리카(137.9%)와 가을감(74.6%)·시설배

10a당 각각 1494만원·462만원 벌어 시설재배 노동생산성은 멜론·호박 순

■ 10a당 농산물 소득 비교



■ 작목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추(62.6%)·축성오이(39.9%) 등 26개 작목이었으며, 소득이 감소한 작목은 녹차(65.6%)·가을배추(43%)·시설가자(40.1%)·양배추(35.5%)·유자(26.8%) 등 25개 작목이었다.

농기원은 파프리카와 시설고추는 수확효율에 따른 가격상승 효과와 난방비 감소로 소득이 증가했고, 가을배추·봄무·양배추·가을무 등은 재배면적 확대와 생산관리로 가격이 폭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파프리카의 경우 지난 2008년 10a당 소득이 627만원에 불과했으나 2009년도에는 1494만원으로 무려 137.9%가 상승했다.

하지만 전체소득과 노동투입시간을 고려하는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따질 경우에는 작목별 소득 순위가 달라진다.

노지재배는 무화과·참다래·가을감자순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았으며, 시설재배는 멜론(促成)·시설호박·시설나리 순으로 높았다.

멜론(축성)의 경우 작기(作期)중 노동투입시간이 185.1시간으로 시설고추(797.1시간)·파프리카(1112.9시간)보다 짧기 때문에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3만2173원97원으로 시설고추(1만6180원)나 파프리카(1만3424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앞으로 농장경영 진단과 경영개선 연구 등 합리적인 영농설계와 농업통계 기초자료로 활용돼 계획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황토고구마순 심기 손길 바쁘다

24일 무안군 현경면 승정리 주민들이 고구마순을 황토밭에 옮겨 심고 있다. 무안 황토고구마는 양파·빨간지마와 함께 전국적인 명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토글토글'이라는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다. /무안=유원기기자 jrw@

담양, 장애인 무료 구강 진료서비스

담양군이 신체적 장애로 활동에 제약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담양군은 24일 1~4급 난내 장애인 417명을 대상으로 잇솔질부터 스케일링 등 무료 구강진료 서비스를 실시했다.

군은 일상적으로 풍치와 충치 등 구강건강문제를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치과 전문인력의 서비스제공과 건강 증진사업 연계 등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치과의사와 치위생사 15명으로 5개 전담팀을 편성해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가정에 직접 방문해 치과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h17@

과학발명품 경진대회

목포 신흥초교 우수학교

목포 신흥초등학교가 '제32회 전남도 학생 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24일 목포 교육청에 따르면 전남 과학학교를 포함, 도내 초·중·고 전체를 대상으로 치러진 이 대회에서 신흥초교는 3명이 출전해 모두 상을 받았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생활과학과 자원재활용 부분에서 금상을 받은 박도현(12)·박상연(10)군은 오는 7월 13일 대전에서 열릴 전국 학생 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 전남도 대표로 출전한다. 지난 2007년 전남도교육청의 과학 연구학교로 지정된 신흥초교는 2008년 '제41회 과학의 날' 우수과학교사 표창에 이어 지난해 '제31회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받은 바 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토관 천일염이 장관 천일염보다 성분 우수

전남 환경연구원 분석 결과 간수성분 적어 맛도 좋아

갯벌위에서 전통방식으로 생산하는 전남산 토관 천일염이 일반 장관 천일염에 비해 함유성분이 우수하고 쓴맛이 덜해 맛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토관 천일염과 장관 천일염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에 따르면 토관 천일염의 염화마그네슘·황산마그네슘·염화칼륨 등 간수성분이 장관 천일염의 절반 정도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쓴맛이 덜해 맛이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

소금 맛을 좌우하는 마그네슘의 경우 토관염 6404mg/kg·장관염 1만2712mg/kg, 칼륨은 토관염 1397mg/kg·장관염 3458mg/kg, 칼슘은 토관염 746mg/kg·장관염 1435mg/kg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토관과 장관 천일염의 성분차이는 토관과 장관의 염전 결정지 바다의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다.

장관 천일염은 햇볕을 잘 흡수해 소금 결정 형성이 쉽도록 검은 장관을 깔아 생산하는데 비해 토관 천일염은 상대적으로 결정속도가 느려 분자의 크기가 크고 마그네슘이나 칼륨 등의 성분도 적게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천일염은 3년 이상 숙성시키면서 소금의 맛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염화마그네슘·황산마그네슘·염화칼륨 등이 상당부분 제거돼 조리 등에 사용할 때 음식 맛이 좋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경철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식품약품분석과장은 "토관천일염은 갯벌 위에서 생산되는 특성상 생산성이 낮아 염전종사자들이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맛과 친환경적 이미지 등을 고려해 토관 천일염 생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 등지에서 시범생산되고 있는 토관 천일염은 지난 2007년 생산면적이 2ha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40ha로 늘어나는 등 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김지기자 dok2000@

통호리 해양리조트 조성 순조·'엔코리조트' 내달 착공

해남 땅끝 체류형 휴양지로 거듭난다

해남 땅끝마을이 대규모 해양리조트 단지와 펜션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있어 체류형 휴양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24일 해남군에 따르면 송지면 통호리 일대 19만4000여㎡의 부지에 펜션 등을 갖춘 해양리조트단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2011년 완공될 해양리조트 단지는 해남의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해 실버 해양펜션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해남군은 고령화로 인한 관광형태

변화에 따른 실버 휴양타운 유치도 적극 검토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또 2012년까지 7만3232㎡ 부지에 총사업비 1080억 원이 투입되는 '엔코리조트' 조성 사업이 다음달 착공식을 갖는 등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엔코리조트' 조성사업은 컨벤션센터와 삼림욕장, 스노와 등이 함께 들어서는 콘도형 빌라촌으로 모두 267세대를 갖춰 땅끝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외에도 송지면 송호리 일대에는 수족관과 야외 음악당 등 가족단위 관광객을 위한 땅끝 해양자연사 박물관 신축공사가 내년 완공을 목표로 연내 착공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땅끝마을의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해 체류·체류형 관광지로의 변신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면서 "관련 사업들이 완료되면 한국을 넘어 국제적인 휴양 인프라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신안으로 병어 먹으러 오세요



내달 12~13일 지도읍서 축제

'제4회 신안 병어축제'가 다음달 12·13일 신안군 지도읍에서 개최된다. '천사의 섬(1004 Islands) 신안 자연탐 그대'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식전행사인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개막식·민선기원 풍어제·1004병어 회무침 비빔밥 만들기·병어회 시식회·맨손

으로 활어잡기·어업인 위안공연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또한 출어하는 어선들의 안전조업과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제와 우제(雨祭)의 일종으로 망자(亡者)가 이승에서 풀지 못하고 맺힌 원한을 풀어주는 극락왕생 기원의 의미를 가진 쇧깃굿도 함께 열린다. /서부취재본부=조완민기자 wncho@

병어는 몸길이 60cm가량으로 등그스름한 마름모꼴의 몸 형태를 갖고 있으며 매년 5~8월 신안 지도읍을 비롯해 중도·임자도·비금도 해역에서 주로 잡히고 있다. 김민석 병어축제 추진위원장은 "신안 청정바다에서 잡히는 병어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며 "병어축제를 신안지역만의 고유 축제로 승화시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지역은 300여 어가에서 연간 500여톤의 병어를 잡아 60여 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서부취재본부=조완민기자 wncho@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TEL 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 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 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 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생열쇠 062-383-8982

■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도 원하는 바를 성취 못하고 알 수 없는 장애가 생기는 분 ■ 현실의 장애를 이겨내고 이루고자 하는 꿈을 실현하고 싶은 분 소원성취의 갑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철술원, 역술원 아남, 상담료 없음) 부담없이 차한잔 하시면서 삶의 지혜를 얻어 가세요

아담공인중개사 010-3616-8698 062-233-2222 태양광부지 구합 나대지, 식당, 전원주택, 전원주택, 종교시설용도, 농장, 주말주택, 전원주택. 위치: 범원입찰장 건너편

GG경매컨설팅(주) 공인중개사 : 김영희 (062)364-8700 H.P.010-4608-3700. Table with columns for 지역, 소재지, 면적, 가격, 최고가, and various real estate listings.